



한국 조선업 일주일에 5조원 수주! & 해운 운임 급등

코멘터리

▶ 일주일에 5조원+알파의 수주

수주가 쏟아집니다.

- ① 삼성중공업은 Evergreen 울트라막스 컨테이너선 6척, \$920m 계약을 마쳤고, PNG발 ExxonMobil-MISC의 LNG선 2척, \$406m을 수주합니다.
- ② 현대중공업은 VLCC 1척, 수에즈막스 2척과 함께 EPS로부터 15,000-TEU 컨테이너선 11척을 서프라이즈 수주했습니다.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이지스함 6,766억원도 수주합니다.
- ③ 현대미포조선도 최근 계속 MR 10여척을 수주했는데, 지난주에는 Masumoto, Blue Wake로부터 MR 2척을 수주합니다.
- ④ 대우조선해양은 LNG선 2척을 수주했고,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잠수함 1조 1,130억원을 수주합니다.

모두 합쳐서 일주일만에 5조원 초반의 수주 소식을 알립니다!

▶ 선가도 좋았습니다

- ⑤ 삼성중공업 MISC LNG선 2척의 신조선가는 \$203m으로 5년만에 2억\$를 넘었는데, 연비 개선 SAVER, 극강의 BOR Mark III-FLEX+ 등의 고사양이 선택되었다고는 하지만, 수익성이 양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⑥ 현대중공업의 VLCC와 수에즈막스도 각각 \$94m, \$65m으로 클락슨보다 높았고
- ⑦ 미포의 MR은 비나신 건조에 스크러버 미장착임에도 \$36m으로 아주 좋았습니다.

▶ LNG-Fuel의 확산!

- ⑧ 한국조선해양의, EPS LNG-Fuel 15,000-TEU 11척 수주는 서프라이즈였습니다. EPS는 2년전 발주한 동일 사이즈 Scrubber 5척, LNG-Fuel 6척을 모두 CMA-CGM에 용선했고, 이에 따라 후속발주가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CMA-CGM이 중국에 맡긴 23,000-TEU는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번 발주가 중국 불확실성에 대한 안전장치일지, LNG-Fuel로 선대를 크게 늘리는 것인지, 둘다 호재입니다.
- 다시 한번 LNG-Fuel의 확산은, 한국 조선업에 엄청난 수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확산세도 빠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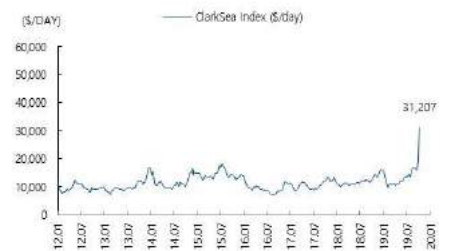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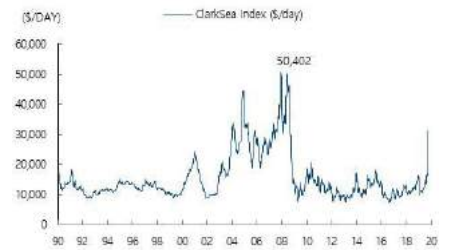
4분기 수주가 쏟아지며 조선사들의 잔고는 반등하고 있고 연말까지 크게 늘니다. 주가도 연말까지 크게 올라야만 하는데, 지난주 주가 상승은 1.7%~5.5%에 불과했습니다.

▶ 지난 일주일 동안, 한국 조선업 수주 무려 5조원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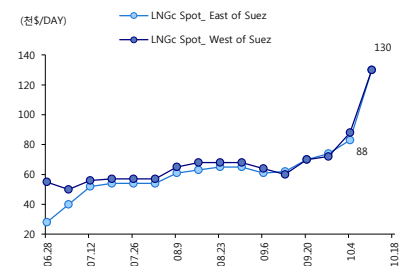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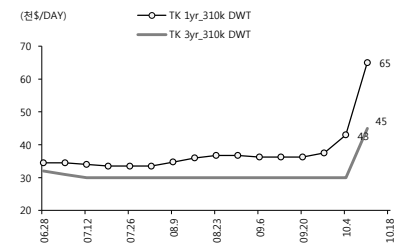
조선사	발주처	선형	척수	척당 금액 (백만\$)	계약금액 (백만\$)
삼성중공업	Evergreen	울트라막스 컨선	6	153.3	920
삼성중공업	ExxonMobil → MISC	LNG선	2	202.8	406
현대미포조선	Masumoto, Blue Wake	MR	2	36.0	72
현대중공업	EPS	D/F 15,000-TEU	11	136.4	1,500
현대삼호중공업	유림선주	VLCC	1	94.0	94
현대삼호중공업	오슬로 OET	수에즈막스	2	65.0	130
현대중공업	방위사업청	이지스함	1	565	565
대우조선해양	방위사업청	잠수함	1	932	932
대우조선해양	미주지역 선주	LNG선	2	186.9	374
					4,992

대표 차트

▶ Clarksea Index 급등: 지지난주 23%▲, 지난주말 55%▲



▶ LNG 스팟운임과 VLCC 용선료 급등



주시 뉴스

※ 상세 내용은 아래 해당 섹션 참조

「IMO: LNG-Fuel 확산」

- ▲ EPS, 현대중공업에 LNG-Fuel 15,000-TEU 11척, 15억\$ 발주!
- ▲ Chandris, Scrubber 장착 수에즈막스에서 프리미엄 dayrate 떠남

「LNG선 수주」

- ▲ Shell, 2년~3년 동안 8척~10척 LNG선 필요: 신조도 협의 중
- ▲ ExxonMobil이 MISC를 통해, 삼성중공업에 LNG선 2척 발주, \$406m
- ▲ 대우조선해양, 미주지역 선주 LNG선 2척, \$373m

「운임과 선가 상승」

- ▲ 삼성중공업의 LNG선 수주 \$203M: 고사양이지만 선가 아주 양호
- ▲ Clarksea Index 지지난주 23%에 이어, 이번주에도 55% 급등: 탱커, LNG 운임도 급등 중

「수주: 상선 폭발」

- ▲ 삼성중공업, Evergreen 울트라막스 컨테이너선 6척 본계약: \$920m
- ▲ 현대미포조선 Masumoto, Blue Wake로부터 MR 2척 수주: \$72m
- ▲ 현대중공업, EPS로부터 15,000-TEU 11척 수주: \$1,500m
- ▲ 현대삼호중공업, VLCC 1척 수주: \$94m
- ▲ 현대삼호중공업, 오슬로 OET로부터 수에즈막스 2척 수주: \$130m

「방산도 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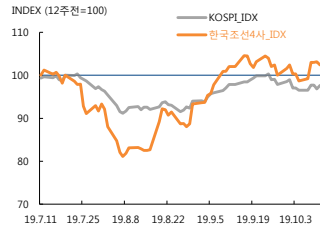
- ▲ 현대중공업, 이지스함 6,766억원 수주
- ▲ 대우조선해양, 잠수함 1조 1,130억원 수주

Hi 중공업 Fla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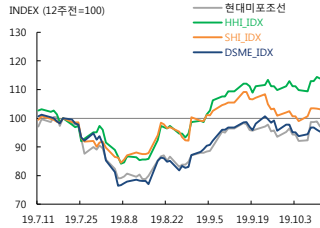


Peer Group 등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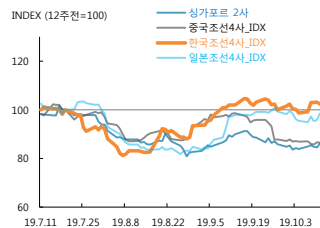
▶ 한국 주식시장 vs. 조선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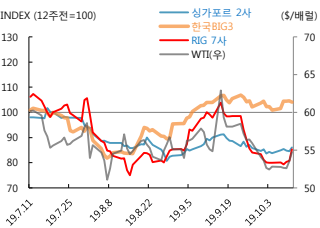
▶ 한국 조선4사 Perform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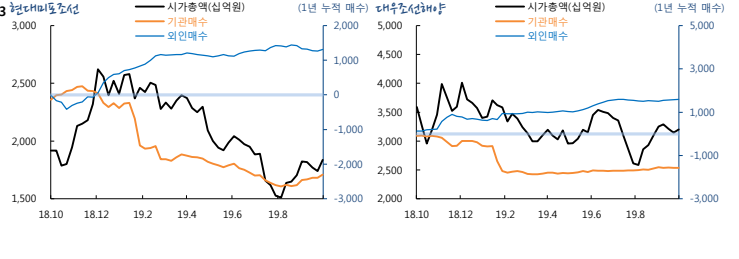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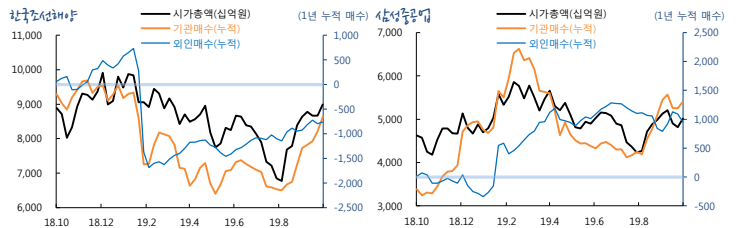
▶ 한/중/일/싱 조선주 주가 비교



▶ 유가 → RIG 선주, 싱가포르 Offshore 제작사, 한국 BIG3



조선 수급



글로벌 피어그룹 주가 흐름

대분류	티커 / 회사명	시총(백만\$)	1W	1M	3M	3M 주가	1Y	3Y
지수	WTI		3.6%	-1.9%	-4.6%		-23%	9%
	CRB INDEX		1.5%	1.3%	-2.6%		-11%	-7%
	Capital Link Container Index		6.8%	-1.4%	9.6%		51%	-1%

조선사								
한국조선	티커 / 회사명	시총(백만\$)	1W	1M	3M	3M 주가	1Y	3Y
한국조선	한국조선해양	8,018	3.7%	4.1%	7.6%		-1%	-5%
	삼성중공업	4,444	4.2%	-2.2%	-1.4%		8%	-10%
	대우조선해양	2,999	1.7%	-1.5%	-8.2%		11%	-33%
	현대미포조선	1,765	5.5%	0.8%	-5.8%		-4%	-41%
	한진중공업	252	1.7%	-6.2%	22.8%		-55%	7%
싱가포르	KEPPEL	8,677	2.8%	-3.9%	10.4%		-12%	13%
	SEMBCORP MARINE	2,794	2.5%	-4.0%	14.8%		-38%	-8%
중국조선	CSSC	2,266	-2.1%	11.9%	14.5%		104%	-8%
	CSIC	14,133	0.0%	-8.8%	12.5%		38%	-18%
	CSSC OMEC	1,786	-1.4%	13.4%	-3.3%		79%	-44%
	YANGZUIANG	3,231	2.6%	-8.5%	35.8%		-24%	31%
일본조선	NAMURA SB	326	2.1%	-0.7%	-8.3%		-47%	-59%
	MITSUI ES	1,412	3.0%	4.5%	-0.5%		-53%	-35%
	KAWASAKI HI	4,490	3.8%	5.1%	-4.6%		-22%	-16%
	SUMITOMO HI	4,089	3.9%	-4.0%	14.5%		15%	26%
대만조선	CSBC CORP TAIWAN	400	1.4%	-0.8%	-1.5%		-17%	-17%

엔진 / 부품								
엔진	티커 / 회사명	시총(백만\$)	1W	1M	3M	3M 주가	1Y	3Y
엔진	MAN	16,112	6.5%	-2.1%	2.2%		52%	-53%
	WARTSILA	11,633	7.7%	3.4%	2.2%		29%	23%
한국엔진	HSD엔진	126	9.9%	5.9%	1.4%		25%	30%
	STX엔진	175	9.9%	8.2%	0.0%		-2%	11%
	STX중공업	69	9.9%	5.5%	0.1%		88%	-94%
기자재	한국카본	269	3.3%	10.5%	0.0%		31%	46%
	동성화인텍	188	3.8%	10.5%	2.1%		38%	86%
	세진중공업	163	9.9%	9.9%	1.1%		26%	56%
	삼강엔티	103	9.9%	1.6%	1.9%		8%	-52%

대분류	티커 / 회사명	시총(백만\$)	1W	1M	3M	3M 주가	1Y	3Y	
RIG	TRANSOCEAN	5,312	7.8%	-2.2%	-5.8%		-65%	-59%	
	SEADRILL	2,070	-7.0%	-2.8%	5.9%		-32%	-67%	
	DIAMOND DRILLING	2,371	9.1%	-2.0%	-15.9%		-71%	-67%	
	NOBLE	1,471	12.7%	-2.8%	-2.8%		-80%	-67%	
	ENSCO	3,200	25.1%	-2.2%	-10.2%		-85%	-35%	
	ODFJELL SE-A SHS	335	4.0%	-0.8%	5.1%		6%	3%	
	ROWAN COMPANIES INC	2,037	0.0%	0.0%	0.0%		-2%	5%	
	OCEAN RIG UDW INC - Dryship	2,806	0.0%	0.0%	0.0%		3%	-100%	
	IOC+	ExxonMobil	348,527	0.0%	-4.1%	-9.4%		-5%	20%
		Shell	272,235	-1.2%	-0.7%	-1.4%		3%	10%
BP		144,512	-0.9%	-3.5%	-9.0%		-2%	1%	
Total		167,925	3.1%	-1.5%	-6.1%		-2%	5%	
Chevron		222,848	2.0%	-4.2%	-6.0%		4%	15%	
ENI		68,344	2.2%	-1.7%	-4.9%		-1%	9%	
ENG.	SBM	3,674	3.8%	-7.4%	-1.7%		3%	11%	
FEED.	TechnipFMC	13,494	1.5%	-5.9%	-6.7%		22%	25%	
	SAIPEM	5,485	4.5%	-7.9%	-4.5%		5%	1%	
	NOV	16,935	0.0%	-1.9%	-3.5%		-9%	-8%	
	MODEC INC	1,745	4.5%	-1.8%	-1.0%		28%	45%	
	WORLEY PARSONS	4,066	2.0%	-5.9%	-1.4%		28%	41%	

해운								
해운	티커 / 회사명	시총(백만\$)	1W	1M	3M	3M 주가	1Y	3Y
해운	MAERSKB DC Equity	28,327	7.1%	-1.4%	-0.5%		9%	-19%
	SHIP FINANCE INTL LTD	1,686	2.0%	1.3%	15.3%		11%	5%
	CLARKSON PLC	1,093	20.1%	26.9%	12.4%		11%	45%
	EURONAV NV	1,816	14.6%	31.4%	27.5%		31%	43%
	GOLDEN OCEAN GROUP LTD	1,311	9.6%	-4.5%	2.7%		-26%	73%
	FRONTLINE LTD	873	11.2%	30.9%	42.3%		78%	53%
	NORC AMERICAN TANKERS LTD	288	48.0%	108.6%	82.7%		79%	-54%
	HNPT OFFSHORE PARTNERS LP	729	1.0%	4.7%	-0.3%		-9%	-7%
LNG	HOEGH LNG HOLDINGS LTD	410	7.8%	-4.6%	2.7%		-17%	-59%
	GASLOG LTD	1,523	13.1%	5.3%	-1.0%		-29%	-13%
	GASLOG PARTNERS LP	1,079	5.5%	2.7%	-7.6%		-20%	-3%
	GOLAR LNG PARTNERS LP	908	6.4%	6.8%	-11.3%		-27%	-53%
	LPG	BW Offshore	1,365	8.3%	5.3%	32.4%		16%
DORIAN LPG LTD		403	5.0%	10.6%	26.3%		50%	78%
EXMAR NV		425	-1.2%	-11.0%	-9.9%		-5%	-26%



ASP & 실적관련(국내외)

선가지수 포함

▲ ExxonMobil-MISC, 삼성중공업에 발주한 LNG선 2척 신조선가는 \$202.5m

아래 LNG 섹션 참조

- ☞ 아무리 고사양 옵션이 채택되었다고 하더라도, LNG선 선가가 아니 올랐다고 하더라도
- ☞ 수익성은 양호할 전망이다.

외신 보도들

- 뉴스/FACT ☞ **당사 의견**

▶ IMO 2020

▲ EPS, 현대중공업에 LNG-Fuel 15,000-TEU 11척, 15억\$ 발주!

싱가포르 Eastern Pacific Shipping은, 2017년 11척에, 이어 또 한국조선해양에 15,000-TEU 11척 발주 2년전 11척은 LNG-Fuel 6척 + Scrubber 5척이었는데, 이번에는 11척 모두 LNG추진 시스템을 선택 이로써 총 22척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건조하게 되었으며, 이번 계약은 2022년 인도가 시작됨
신조선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130m~\$135m으로 전함
올해 초 CMA-CGM의 중국 Jiangnan으로의 15,000-TEU 발주가 \$130m이었던
앞의 11척은 Scrubber가 6월과 7월 2척 인도되었고, 3호선이 11월, 나머지 2척은 내년에도 인도되며, 모두 CMA-CGM에 \$40,000/day로 용선되며
LNG-Fuel 6척은 2020년~2022년 인도로, CMA-CGM에 15년간 \$55,000/day로 용선됨
☞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던 LNG-Fuel 컨테이너선 세트가 발주됩니다.
☞ 다음으로 컨테이너선에서는 Hapag-Lloyd, 탱커는 Total, ExxonMobil, 벌크는 BHP의 LNG-Fuel 입찰이 떠 있습니다!

[09월4주] ▲ EPS의 LNG-Fuel 컨테이너선 6척, 결국 CMA-CGM으로 용선

EPS의 LNG-Fuel 15,000-TEU의 용선처는 MSC가 아닌 CMA-CGM인 것으로 최종 확인
15년, \$55,000/day, 신조선가는 당시 \$120m~\$140m으로 추정
CMA-CGM이 LNG-Fuel 컨테이너선 채택에 가장 적극적이데, 중국 후동중화화와 장난조선에 발주한 22,000-TEU의 발주처이기도 함
이 선박들은 계속 지연되어 2020년초부터 인도되는 것으로 전함
또한 CSSC Shipping Lease가 발주한 15,000-TEU 5척(\$130m, 2021년 인도)도, CMA-CGM이 용선

[09월2주] ▲ EPS의 LNG-Fuel 6척, MSC로 용선설

[02월1주] ▲ EPS, CMA-CGM에 \$750m 용선 따냄

[18년10월] ▲ Eastern Pacific → 현대삼호, 옵션행사로 15,000teu 7척 추가

▲ CMA CGM이 LNG 추진의 선봉을 담당 중

갑자기 알려진 EPS의 LNG-Fuel 11척 배후에도 CMA-CGM의 용선계약이 있을 수 있다는 시장 판단
CMA-CGM은 중국에서 23,000-TEU 9척과 15,000-TEU 5척을 건조 중이며, 1,400-TEU 6척도 건조 완료
23,000-TEU는 처음 외교교에 5척, Shanghai Jiangnan Changxing에 4척 발주되었으나
이후 후동중화 5척, Jiangnan SY 4척으로 변경: Jiangnan SY의 2018년 12월 Chingxing 항법 때
1,400-TEU 6척은 지난 8월 인도되어 유럽 인프라 항로에 투입 예정
최근 MSC는 Scrubber를, Evergreen도 Scrubber를 선택했지만, CMA-CGM은 LNG-Fuel로써 선대를 확대 중
후속으로 Hapag-Lloyd는 23,000-TEU에서 Scrubber와 D/F를 함께 고민하게 있는데
올해 17척(14,993-TEU 11척, 19,870-TEU 6척) 중 14,993-TEU(2014년 건조) 1척을 LNG-Fuel로 개조해 테스트 예정: 상해 Huarun Dadong Dockyard에서 개조
☞ LNG-Fuel이 확산되고 있으며
☞ 중국의 CMA-CGM 대형선은 인도가 연기되고 있습니다!

▲ Chandris, Scrubber 장착 수에즈막스에서 프리미엄 dayrate 따냄

Chandris는 최근 Total과 Scrubber Retrofit이 진행 중인 2009년 건조 158k-DWT에 2년, \$29,000/day 용선 계약 체결해, 프리미엄을 확인
Total과 Chandris로부터 공식 확인은 없음
최근 수에즈막스 용선 계약 2건은, TEN-Koch 사이의 2011년 건조 수에즈막스가 \$26,500/day
Occidental Petroleum도 2006년 건조 수에즈막스를 \$27,000/day였음
☞ 1년에 \$0.7m의 추가 수익을 보여주는 용선 계약입니다. 5년~6년 정도의 Payback Period로 추산됩니다.

▶ 해양

▽ Fredriksen의 Northern Drilling, 대우조선해양에서 매입한 드릴쉽 1기 취소

여러 가지 이유로, 대우조선해양의 드릴쉽 1기를 취소한다고 발표
Fredriksen의 Northern Drilling은, 역시 Fredriksen의 Seadrill이 계약취소한 2기를 \$592m에 매입했고
올해 5월에는 옵션을 행사해 Vantage Drilling이 계약취소한 "Cobalt Explorer"도 \$350m에 추가 매입한 바 있음
이 드릴쉽은 2013년 Vantage가 \$593m에 계약했다가 2015년에 취소한 것으로, 원가는 \$660m으로 추산됨
계약 취소한 드릴쉽은 이 Vantage의 "Cobalt Explorer"이며, 납입한 선수금 \$49.2m의 Refund를 요구하고 있음
☞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 삼성중공업과 마찬가지로, 드릴쉽 잔존가치 평가에 따른 일부 충당금 설정이 반영되어야겠습니다.

[18년5월] △ 빅존이 계약취소한 DSME의 드릴쉽을, 빅존의 Northern Drilling이 매입

- Seadrill은 Chapter 11으로, DSME와 SHI에 각각 2기의 드릴쉽을 계약취소하며 각각 20%, 30%의 선수금을 포기
- 그런 John Fredriksen(Hemen Holding)은 계약취소 드릴쉽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다른 자회사 Northern Drilling을 통해서 DSME의 2기를 적당 \$296m에 매입
- 먼저 적당 30% 선수금 \$90m을 지급하고, 잔금 \$206m은 2021년 1월과 3월 인도시 잔금
- 2013년7월 드릴쉽들의 계약금액은 \$531m이었고, 선수금 20% 몰취 \$106m, 매각가 \$296m을 해도, 계약금액의 25%, \$131m가 할인된 금액에 매각이라는 보도

[18년4월] ▶ Fredriksen의 Seadrill이 취소한 SHI와 DSME 4척 드릴쉽: Fredriksen이 다시 매입 협의 중



▶ LNG

▲ Shell, 2년~3년 동안 8척~10척 LNG선 필요: 신조도 협의 중

Shell은 향후 2년~3년간 8척에서 10척의 LNG선을 인도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이달말까지 "선호 조선사"를 선정 예정
조선사들의 제안이 경쟁력이 떨어질 경우, 기존 투기발주를 흡수할 수도 있다고 전망
Shell의 움직임은, 14MTPA의 LNG CANADA 때문일 것으로 추정되며, 최근 미국 Calcasieu Pass LNG의 2MTPA 매입도 추가됨 또는 노후선 교체를 위한 투자일 수도 있다는 진단
작년에 Shell은 철저한 보안 하에, 선사들에게 LNG선 2척을 요청해 용선을 흡수한 바 있음
당시, 12월에는 2주만에 응답을 요구했고, 결국 TMS Cardiff의 4척, SCF의 2척을 7년 용선함
이 6척은 모두 현대중공업이 건조하는 선박
Total도 Shell과 비슷한 계약을 하고자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함
☞ ExxonMobil의 PNG발 발주가 진행 중이며,
☞ Shell과 Total도 움직입니다. 2020년 LNG선 수주는 너무 많을 전망입니다.

▲ ExxonMobil이 MISC를 통해, 삼성중공업에 LNG선 2척 발주

ExxonMobil은 15년 기한 용선 계약을 맺고 말레이시아 MISC를 통해 삼성중공업에, 2023년3월 인도로 174k-CBM, LNG선 2척을 계약
신조선가가 무려 \$202.5m으로 2억\$를 넘었는데
선박에 재역화 시스템, 최신 스마트쉽 솔루션, Mark III+(플러스) 등의 고사양이 채택되었다는 설명
☞ 이번발주는 PNG발 8척 중 2척으로 추정됩니다.
☞ 즉, 현대중공업도 곧 LNG선 6척 수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09월3주] △ ExxonMoil - MISC를 통해 LNG선 8척 중 일부 발주로 잡힘

미국 ExxonMobil은 말레이시아 MISC를 선호 발주처로 선정: 'ExxonMobil은 170k~180k-CBM LNG선 2척을, 2022년 인도로 용선발주를 협의해 음: 3년~15년 여기서 건조 조선사로 삼성중공업을 먼저 선정했고, 이번에 MISC를 발주처로 선정: '현대중공업도 백업 조선사로 선정함
이번 2척은 PNG 프로젝트 확장(7.6MTPA)에 필요한 LNG선으로 전함

[09월2주] △ 파푸아뉴기니 PLNG, 그린라이트

[09월1주] ▲ ExxonMobil, LNG선 2척 삼성중공업에, 향후 6척 현대중공업으로 선정

[08월4주] ▲ ExxonMobil, LNG선 8척 발주 상당히 진전된 상황

[03월2주] ▲ ExxonMobil, 파푸아뉴기니 프로젝트발 LNG선 8척 발주 추진

△ 카타르 QP, NFE EPC 연말 결정

4개 Train에서 31MTPA(7.8MTPA x 2기)를 확장하는 카타르 QP(Qatar Petroleum)의 NFE(North Field Expansion)의 지분 Farm-out을 ...
... ExxonMobil, Shell, Total, ConocoPhillips와 협의 중
ConocoPhillips는 이미 카타르의 기존 Ras Laffan의 파트너
4개의 Train은 2024년부터 3개월~6개월 시차를 두고 완공될 예정
온쇼어 패키지, 액화 설비, 저장탱커, 유틸리티, 황제거 설비 등에서 총 180억\$의 설비 EPC에
3개 컨소시엄이 경합 중: Chiyoda + TechnipFMC vs. JGC + 현대건설, Saipem + McDermott
현재 QatarGas는, pre-FEED의 Technical/Commercial Bidding 평가의 끝자락에 왔는데, TechnipFMC가 유리한 것으로 전함

[08월3주] ▲ 카타르 LNG선 일정표 정리: 2020년 하반기에 LNG선 계약, 그 이전에 Berth Slot 예약

150억\$, 80척LNG의 카타르 프로젝트의 첫 선주들과 접촉 소식이 알려짐: 선주들에게 7월말 SOI(solicitation of interest)를 통지했고
8월19일까지 선주들은 조직, 재무상태, 기술력 등의 상세 내역을 제공함
NFE(North Field Expansion) 프로젝트에 174k-CBM ~ 266k-CBM의 선박 스펙에, 현재로서는 60척 정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도
Qatargas는 조선사들과 Berth Slot을 예약하고, 향후 선정되는 선사와 용선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사들은 선정된 조선사들과 계약하는 구조임
또한 선사들은 기존선을 제시해도 됨
선사들의 일정은 2020년1월말 PQ를 마치고, 2월 공식적인 입찰을 시작해, 4월에 Technical/Commercial 제안서를 제출해, 6월에 선사를 선정할 예정
조선사들에게는 지난 6월 중순, 초기 제안을 건넸으며, 2023년부터 매년 10척씩 4년에 걸쳐 인도 받을 예정
이에 추가로 카타르가 지분을 보유한 미국 Golden Pass LNG의 16MTPA에서도 선박이 필요
NFE와 Golden Pass는 모두 2024년 가동을 시작할 예정
또한 카타르는, 최소 10척의 노후선 교체 수요도 있는 것으로 전해짐

[05월1주] ▲ 카타르의 대규모 LNG선 발주 유관 업데이트: 5월말 조선사들 초기 제안서 제출

[04월5주] ▲ 카타르 LNG 대규모 발주, 최소 60척 ~ 최대 100척 이상

[02월4주] ▲ 카타르 최대 60척 발주 의사 확인

△ 대우조선해양, LNG선 2척 수주

대우조선해양은 미주지역 선주로부터 LNG선 2척 수주 공시
계약금액은 4,465억원, 척당 \$186.9m, 2022년9월 인도
☞ 신조선가가 낮아 옵션행사로 추정됩니다.



한국 조선업 수주와 수주설

▼ Clarksons 신규 수주 업데이트

@Hyundai HI (Ulsan)→Eastern Pacific Shpg, CONT(14,812-TEU) 5척

- 위의 IMO 섹션 참조

@Hyundai Samho HI→Unknown, TK(300k-DWT) 1척

- 아래의 수주설 참조

@Hyundai Mipo→Central Shpg Monaco, PTK(50k-DWT) 3척

[10월1주 플래쉬] ▲ Evangelos Pistiolis, 현대미포에 MR 3척 발주, 고사양으로 선가도 \$40m

- 그리스 Evangelos Pistiolis의 Central Group은 현대미포조선에 50k-DWT MR 3척을 발주

- 2021년 1분기 인도로, 신조선가는 \$40m으로 상당히 높음: 이는 Scrubber 장착 및 고사양이기 때문이라는 설명

- 이로써 올해 그리스 선주들의 MR 잔고는 19척이 됨

- Pistiolis는 20년 동안 MR2 탱커 시장의 전문가로써, IMO 2020에 따른 저유황유 물동량 증가를 기대한다고 설명

- 또한 Pistiolis는 지난 5년간 23척의 탱커를 현대중공업 그룹에 발주한, 우량 고객

- 최근 발주에서 52%는 Scrubber를 장착해, IMO 2020에도 잘 준비되어있다고 설명

@Samsung HI→MISC, LNG(174k-CBM) 2척

- 위의 LNG 섹션 참조

@Samsung HI→Evergreen Marine, CONT(23,764-TEU) 6척

- 아래의 수주설 참조

▼ 신조 발주설(뉴스 단계)

▲ EPS, 현대중공업에 LNG-Fuel 15,000-TEU 11척, 15억\$ 발주!

- 위의 IMO 2020 섹션 참조

▲ 삼성중공업, Evergreen 울트라박스 컨테이너선 6척 본계약

- 삼성중공업은 대만 Evergreen과 23,000-TEU 6척, \$920m 건조 계약을 체결: 해당 신조선가 \$153.3m

- 인도는 2022년5월까지이며, 정확히 사이즈는 23,764-TEU로, 역시 삼성중공업이 건조 중인 MSC의 23,756-TEU를 넘어서

- 400m x 61.5m에 높이 33.2m이며, 연비를 7% 개선시키는 SAVER와 rudder bulb가 장착됨

☞ 이미 LOI가 알려진 수주의, 본 계약 전자공시로 조선주는 4% 안팎 상승했습니다.

☞ 그렇다면, 연말까지 이런 전자공시가 상당히 많이 남았기 때문에, 주가도 기대됩니다.

[09월3주] △ Evergreen의 23,000TEU 11척 → 10척: 삼성중공업 6척 고정, 일본 → 중국으로 변경

[08월4주] ▲ Evergreen의 23,000-TEU 11척 중 6척, 삼성중공업 수주

[08월2주] ▷ Evergreen, 23,000-teu 11척 경합 현황: 일본 우세설

[06월4주] ▲ Evergreen, 23,000-TEU 9척+2척 발주 진행

▲ 대우조선해양, 잠수함 수주

- 대우조선해양은 1조 1,130억원의 잠수함 1척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수주: 2026년말까지 인도

- 이는 3,000톤급 잠수함 장보고-III 2차사업 선도함의 설계 및 건조사업으로써, 2016년에 수주한 잠수함의 기본설계 사업을 2018년 말 완료

- 대우조선해양은 2012년 약 1조 7,000억원 규모의 장보고-III 1차사업을 수주해 현재 2척의 잠수함을 건조 중이며

- 지난 4월엔 1조 2,000억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잠수함 3척 건조사업을 수주

☞ 박사(트럼프)에게서 28조의이디스스척이며서 사선이 받즈겨세은 이브 마히하니다

▲ 현대중공업, 이지스함 수주

- 방위사업청과 6,766억원 규모의 이지스함 '광개토-III 배치-II'의 상세 설계와 건조 계약을 체결

- 해군이 도입하는 차세대 이지스함 3척 가운데 첫 번째로 울산조선소에서 건조해 2024년 11월 인도

- 길이 170m, 너비 21m, 무게 8100t으로 최대 30노트(약 시속 55km)의 속도로 운항

- 기존 이지스함과 비교해 탄도탄 대응 능력과 대잠수함 작전 수행 능력을 개선했음

- 현대중공업은 국내 최초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의 기본설계와 건조를 담당해 지난 2008년 해군에 인도했고

- 세 번째 이지스함인 '서해 류성룡함'을 건조한 데 이어

- 이번에는 차세대 이지스함의 설계와 건조를 맡아 국내 이지스함 4척 중 3척을 현대중공업이 건조



▲ 오슬로 OET, 현대삼호중공업에 수에즈막스 2척 발주

- Okeanis Eco Tankers는 현대삼호중공업에 수에즈막스 2척 발주: 4월 발주에 딸린 옵션 행사
- 2020년8월 인도이며, 신조선가는 \$64.5m
- 지난달에도 Kyklades Maritime으로부터 수에즈막스 2척(\$66m)을 수주했는데
- Kyklades는 Okeanis의 지분 55%를 보유 중
- ☞ VLCC 다음 수에즈막스도 나와서, 한국조선해양의 도크를 골고루 꼭꼭 채워줍니다.

▲ 현대미포조선 MR 수주 팰리에, 또 2척 추가: Masumoto, Blue Wake Shp.

- 현대미포조선은 일본 Masumoto와 싱가포르 Blue Wake Shipping으로부터 50k-DWT 탱커 각 1척씩 수주
- 비나신 건조이며, 인도는 2021년: 모두 Scrubber를 장착하지 않지만 신조선가는 \$36m으로 양호
- Masumoto는 2년전 비나신에 \$32m에 발주해, 내년 3월과 6월 인도 예정
- 이번 수주로 현대미포조선은 최근 몇 주간으로 7척의 MR을 수주
- 이전 수주들은 Central Group, Fukujin Wisen 등: 모두 비나신이며, 2020년말~2021년1분기 인도물

▲ 현대삼호중공업, VLCC 1척 수주, \$94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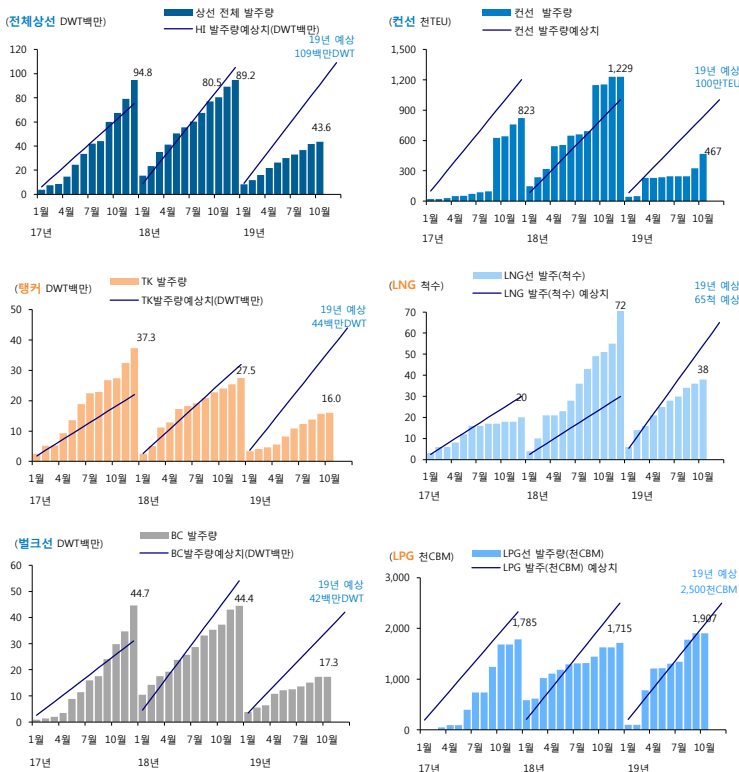
- 현대삼호중공업은 2021년3월 인도물의 VLCC를 1척 수주
- 유럽 선주라고만 알려졌고, 신조선가는 \$94m으로 양호

▽ 일본 자국 발주 VLCC, \$90m 중반 신조선가

- 일본 Kyoei Tanker가, 자국 Namura SB에 VLCC 1척을 2021년 하반기 인도로 발주
- 척당 신조선가는 \$90m 중반으로 알려짐: 로컬 정유사와의 용선 기반 발주로 추정
- Kyoei는 이미 Namura에서 VLCC 2척 건조 중이며, 2019년말과 2020년3월에 인도 예정
- Kyoei는 NYK의 자회사로 VLCC 5척, PC 3척, VLGC 2척, 벌크선 5척을 운영 중
- ☞ 일본과 신조선가는 비슷합니다.

당사 예상 대비 발주와 발주 LIST

▶ 당사예상 대비 발주 추이



클락슨 신조 발주: 한/중/일

주석: 클락슨 입력 DATA만 & 예상은 뉴스/공시 기준

국가	조선사	계약일	발주 국가	발주처	선종	크기	인도	척수
19년09월4주								
BIG6	Hyundai Samho HI	19.9.23	Unknown	Unknown	TK	158k DWT	2021	2
중국	GSI Nansha	19.9.23	중국	P&O Ferries	FERRY	2k Passengers	2023	2
	New Times SB	19.9.17	중국	Shandong Shipping	PTK	50k DWT	2021	8
	COSCO HI (Yangzhou)	19.9.17	중국	Shandong Shipping	BULK	82k DWT	2020	4
	COSCO HI (Dalian)	19.9.25	중국	COSCO Ship Energy	PTK	50k DWT	2021	2
일본	Hakodate Dock	19.7.1	아시아	Mitsui Marine Group	BULK	38k DWT	2021	1
	JMU Maizuru Shipyard	19.7.1	아시아	Mitsui Marine Group	BULK	82k DWT	2021	2
19년10월1주								
BIG6	Hyundai HI (Ulsan)	19.7.11	한국	SK Shipping	LNG	180k cu.m.	2021	1
	Hyundai Vinashin	19.3.1	일본	Fukujin Shipping	PTK	50k DWT	2020-2021	2
중국	Beihai Shipyard	19.9.25	한국	KMARIN	BULK	325k DWT	2022	2
	GSI Nansha	19.9.27	유럽	Nordic Bulk Carriers	BULK	95k DWT	2021	2
	Jiangnan SY Group	19.8.1	중국	Tianjin SW Maritime	LPG	86k cu.m.	2021	1
		19.10.2	유럽	UECC	PCTC	4k Cars	2022	1
		19.9.26	유럽	Anthony Mvedzi	LNG	30k cu.m.	2022	1
중국	Nantong COSCO KHI	19.7.1	유럽	Efnav	BULK	82k DWT	2021	1
일본	Imabari SB (Imabari)	19.5.1	Unknown	Unknown	CONT	2k TEU	2020	3
			일본	Unknown Japanese	BULK	64k DWT	2020	1
	Imabari SB Saijo	19.1.1	Unknown	Unknown	TK	310k DWT	2021	1
		19.2.1	Unknown	Unknown	TK	310k DWT	2021	1
	I-S Shipyard	19.2.1	일본	Unknown Japanese	BULK	38k DWT	2020	2
	Kegoya Dock	19.1.1	일본	Kotoku Kaikan KK	LPG	2k cu.m.	2020	1
	MHI Nagasaki	19.9.24	일본	Shin Nihonkai Ferry	RORO	0k Passengers	2021	2
	Sasebo HI	19.7.1	일본	Unknown Japanese	BULK	82k DWT	2021	2
	Shin Kochi Jyuko	19.3.1	일본	Unknown Japanese	BULK	14k DWT	2020	1
	Shin Kochi Jyuko	19.3.1	일본	Unknown Japanese	BULK	20k DWT	2020-2021	2
19년10월2주								
BIG6	Hyundai HI (Ulsan)	19.9.30	아시아	Eastern Pacific Ship	CONT	15k TEU	2021-2022	5
	Hyundai Mipo	19.9.30	아프리카	Central Ship Mores	PTK	50k DWT	2021	3
	Hyundai Samho HI	19.10.8	Unknown	Unknown	TK	300k DWT	2021	1
	Samsung HI	19.10.9	아시아	MISC	LNG	174k cu.m.	2023	2
	Samsung HI	19.10.7	아시아	Eurogreen Marine	CONT	24k TEU	2021-2022	6
중국	Davang Offshore	19.9.25	아시아	Hong Lam Marine	#N/A	9k DWT	2021	2
	Ningbo Zhenhe SB	19.9.3	아시아	EA Technique	PTK	9k DWT	2020	2
일본	Namura Shipbuilding	19.6.1	일본	Kyoei Tanker	TK	310k DWT	2021	1



국내 보도

▶ 공통 보도

▷ 中 물량공세에 밀린 韓조선, 5개월만에 수주 1위 내줘

<http://lnr.ii/pKkiW>

지난달 전세계 선박 발주량은 114만CGT(44척); 이 가운데 한국은 32만CGT(9척)을 수주했고, 중국은 74만CGT(30척)을 수주
 중국이 전체 발주량의 65%를 한국이 23%를 차지한 셈
 중국이 수주 1위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건 자국 발주물량 비중이 컸기 때문으로 풀이; 지난달 수주량 53%가 자국에서 발생
 누계 수주액은 한국이 126억7000만 달러로, 126억5000만 달러를 기록한 중국을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2개월 연속 1위를 유지 중

▷ 포스코발 철강값 인상...자동차업계 이어 조선업계 '긴장'

<http://lnr.ii/nruDR>

포스코가 일부 자동차강판의 가격을 인상키로 하면서 업계에 가격 인상 러시를 불러 일으킬지 주목
 철강 제품 가격 상승은 후방산업인 조선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
 포스코 현대제철이 후판 값을 올려도 치열한 수주 경쟁 탓에 선박 가격에 전가하기 힘들어 조선업계는 철강사의 제품 가격 인상 움직임에 바짝 긴장
 현재 철강업체와 조선업계는 선박 건조에 쓰이는 후판 가격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가격 인상이 여의치 않음
 후판은 선박 건조 비용에서 20%가량 차지해 조선사들은 후판가격 변화에 민감
 LNG(액화천연가스)선 등 수주가 이어지고 있지만 선가는 떨어지며 기저효과인 상황에서 후판가격까지 올리면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음
 반면 철강업계는 후판 사업부분 적자가 지속돼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입장

▶ 한국조선해양 보도

N/A

▶ 현대중공업 보도

▲ 현대중공업 6700억원대 차세대 이지스함 수주

<http://lnr.ii/G9Qs3>

방위사업청과 총 6766억원 규모의 이지스함 '광개토-III 배치-II(구축함 조감도)'의 상세 설계-건조 계약
 건조하는 이지스함은 해군이 도입하는 차세대 이지스함 3척 가운데 첫 번째로 울산조선소에서 건조해 오는 2024년 인도할 예정

▲ 현대미포조선, 일본과 싱가포르에서 MR탱커 1척씩 수주

<http://lnr.ii/Esl.61>

현대미포조선이 일본 해운사 마쓰모토시핑과 싱가포르 해운사 블루웨이크시핑으로부터 MR탱커를 1척씩 수주
 베트남 자회사 현대비나신이 선박을 건조
 2척 모두 저유황유를 연료로 사용해 스크러버는 미탑재, 건조가격은 1척당 3600만 달러(431억 원가량); 선박 인도기한은 2021년으로 예상

▲ 현대삼호중공업, 1127억원 규모 초대형유조선 공사 수주

<http://lnr.ii/b3gRu>

현대삼호중공업이 유럽 소재 선사와 30만 DWT급 초대형 유조선 1척 공사 수주 계약을 체결
 계약금은 1127억원으로 전년도 매출액의 4.30%에 해당

▲ 현대중공업, 1만5000TEU급 LNG컨선 11척 2021~22년 싱가포르 이스턴퍼시픽 인도

<http://lnr.ii/619gu>

EPS는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선 발주에 나선 가운데 현대중공업이 2021~22년에 11척의 LNG 컨테이너선을 EPS에 인도할 예정
 EPS는 이미 발주한 11척의 LNG 연료 컨테이너선을 CMA CGA에 용선했다고 확인했으며 2021~22년에 자매선박 11척을 현대중공업에서 인도받을 것
 추가 발주 11척도 주요 선사들에게 용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11척도 CMA CGA에 곧 용선될 것
 이 선박을 현대중공업이 건조하는 것

▷ 현대삼호중, 강제 상환조건 사모채 발행

<http://lnr.ii/l.kJfE>

현대삼호중공업은 이달 4일 신용등급 하락시 조기상환해야 한다는 강제 특약이 걸린 2년물 회사채 500억원어치를 발행
 강제 특약을 내건 채권 발행은 회사 설립 이후 처음
 회사채 신용등급이 BBB- 이하로 떨어지거나 단기 신용등급이 A3- 이하로 하락시 조기상환해야 하는 조건
 단기 신용도는 A3+ 수준으로 두 단계 하락시 조기상환 트리거가 발동; 표면이율(쿠폰금리)은 연 3.850%
 시장에선 강제특약과 관련, 현대삼호중공업의 부진한 수익성에 대한 투자자의 불안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
 현대삼호중공업은 건조선가 하락 등 업황 악화로 2012년 이후 수익성이 저하된 상황

△ 현대중공업, 세계 최대 출력 '힘센엔진' 개발

<http://lnr.ii/1u0r6>

현대중공업은 중형엔진 중 세계 최대 출력을 자랑하는 '힘센(HiMSEN)엔진' 신모델을 개발
 힘센엔진 신모델(모델명: H54DF)은 최대 출력이 3만6000마력
 디젤과 천연가스 두 가지 연료를 선택적으로 사용해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등 유해 배기가스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이중연료 엔진
 출력은 기존 이중연료 엔진보다 약 3배 높고, 디젤엔진과 비교해도 18%가량 높았음
 지난해 2600억원 수준인 힘센엔진 매출을 2025년까지 1조원으로 늘릴 계획

▷ 현대미포조선 노조, 임단협 난항... 23년만에 파업 돌입

<http://lnr.ii/LVeJX>

현대미포조선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에서 난항을 겪자 23년 만에 전체 조합원 부분파업에 돌입
 현대미포조선 노조는 11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부분파업에 돌입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12만3867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 성과급 250%+α, 연차별 임금 격차 조정, 총 고용 보장 등을 요구



▶ 삼성중공업 보도

▲ 삼성중공업 Evergreen Marine Corp.과 1조 988억원 계약체결

<http://lnr.ii/zkh1Y>

삼성중공업은 Evergreen Marine Corp.과 1조 988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 이번 계약은 공사수주이고 계약기간은 2019년 10월 07일부터 2022년 05월 31일 계약규모는 1조 988억원으로 최근 매출액인 5조 2651억원 대비 20.9% 수준

▲ 삼성중, 말레이시아 선사로부터 LNG운반선 2척 수주

<http://lnr.ii/4Ln3Y>

말레이시아 선사인 MISC로부터 17만4000m³급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2척을 수주 액스모빌이 생산하는 LNG를 운송할 예정, 최신 멤브레인 타입 화물창에 재액화 장치, SCR과 BWTS가 적용돼 각종 환경규제에도 부합 독자개발한 스마트십 솔루션 '에스베셀(S VESSEL)'이 탑재돼 연료 소모를 줄일 수 있는 최적 운항 계획도 자동으로 수립하는 등 경제적 운항도 가능 이번 수주한 LNG운반선은 약 4800억원 규모로 추정

▶ 대우조선해양 보도

▽ 대우조선, '4100억' 재고 드릴십 매각 불발...계약해지 통보 받아

<http://lnr.ii/CFWgX>

재고자산으로 보유 중이던 드릴십(심해 시추선) 1척 매각이 최종 불발되면서 4100억원의 매각 대금 확보가 불투명 노르웨이 노던드릴링의 자회사 웨스트 코발트가 대우조선에 드릴십 구매계약 해지를 통보 계약 취소 배경에는 대우조선의 계약 위반이 거론; 여러 가지 이유로 대우조선의 계약 위반을 지적하며 매입을 전면 취소 대우조선이 매각하려는 드릴십은 지난 2013년 미주지역 선주로부터 수주한 것

▲ 대우조선해양, 해군 잠수함·LNG운반선 등 1조 5,600억 원 대규모 수주

<http://lnr.ii/sgHRM>

대우조선해양은 방위사업청과 3,000톤급 잠수함 장보고-III 2차사업 선도함의 설계 및 건조사업을 1조 1,130억 원에 계약 체결 같은 날 미주지역 선주로부터 LNG운반선 2척도 수주 이날 수주한 잠수함 포함 선박 3척의 총 계약금액은 약 1조 5,600억 원

▶ 중소형 조선사 및 기자재 보도

▷ 산업은행, 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 RG발급에 561억 손실

<http://lnr.ii/9xG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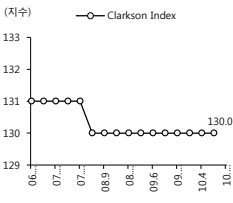
산업은행이 지난 2016년 RG를 발급한 선박 4척(보증액 1090억원)과 관련해 561억원의 보증 손실이 발생 산은은 한진중공업홀딩스 사육을 담보로 잡아 자금 회수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건물의 가치가 손실 규모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음 실제 입수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에서 정석빌딩의 가치는 2016년 당시 약 345억원으로 평가

HI 중공업 Fla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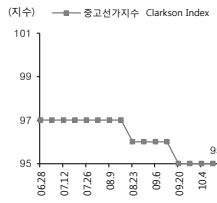


신조선가 & 중고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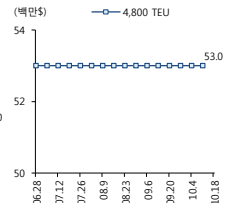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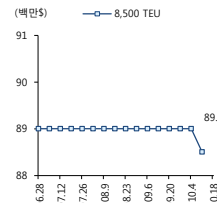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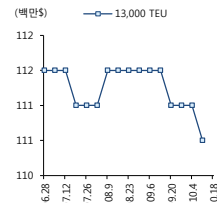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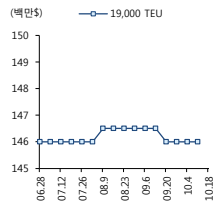
▶ 신조선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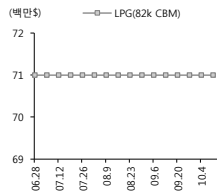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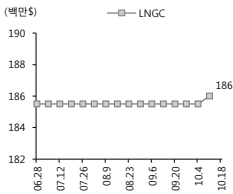
▶ 중고선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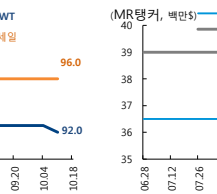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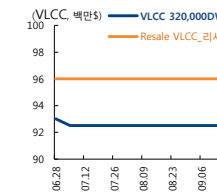
▶ 컨테이너선 신조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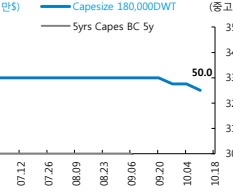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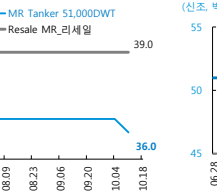
▶ 가스선들



▶ 탱커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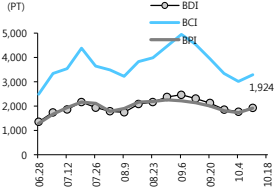


▶ 벌크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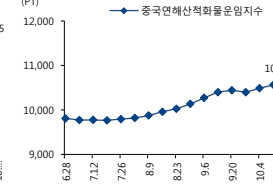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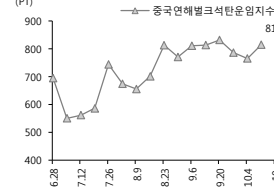


운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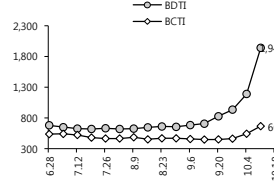
▶ 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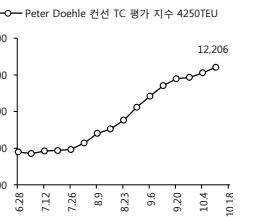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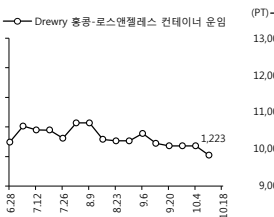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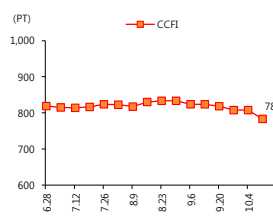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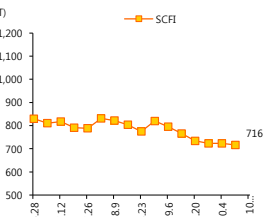
▶ 중국



▶ 탱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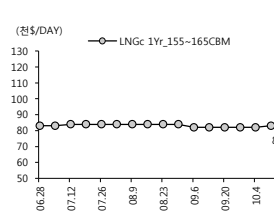


▶ 컨테이너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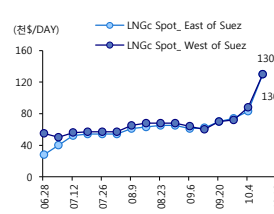


용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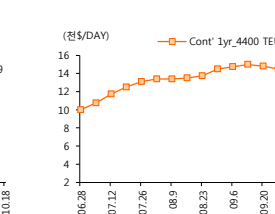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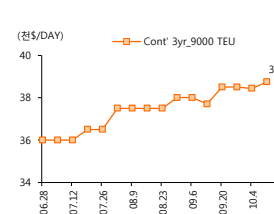
▶ LNG선 용선료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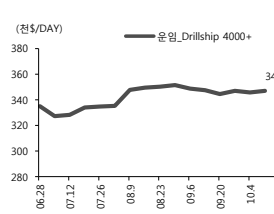
▶ LNG선 SPOT 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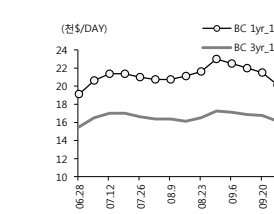
▶ 컨테이너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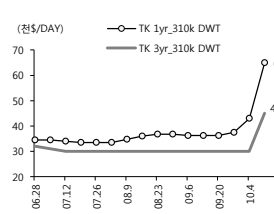
▶ 드릴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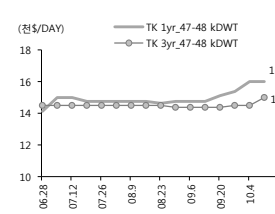
▶ 벌크 - 케이프



▶ 탱커 - VLCC



▶ 탱커 - MR 탱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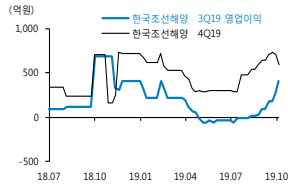


HI 중공업 Fla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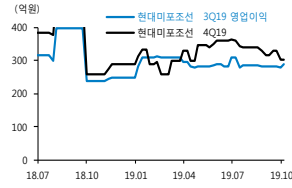


Consensu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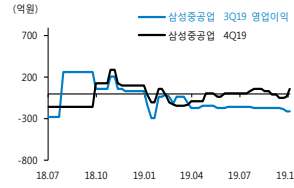
▶ 한국조선해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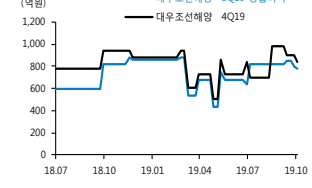
▶ 현대미포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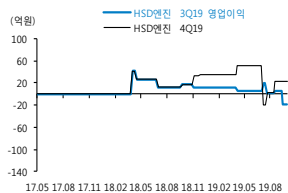
▶ 삼성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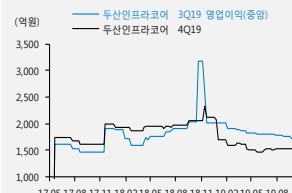
▶ 대우조선해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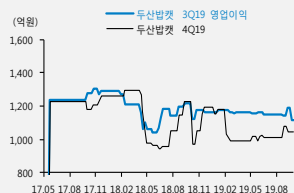
▶ HSD엔진



▶ 두산인프라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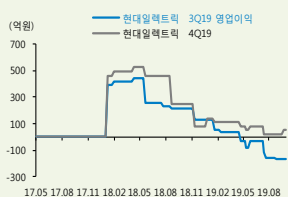
▶ 두산밥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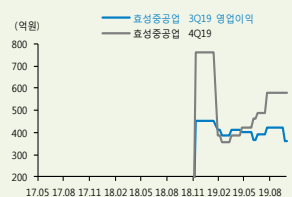
▶ 현대건설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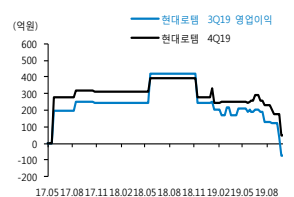
▶ 현대일렉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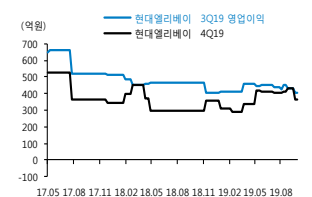
▶ 효성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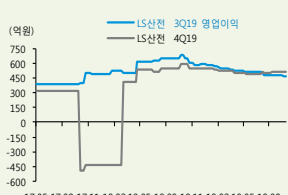
▶ 현대로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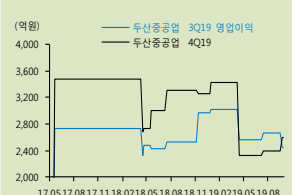
▶ 현대엘리베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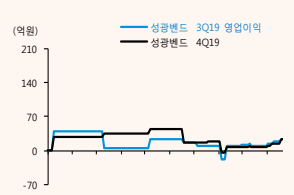
▶ LS산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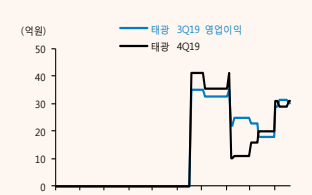
▶ 두산중공업



▶ 성광벤드



▶ 태광



출처: Dataguide

▶ 조선/기계 EPS, BPS 등 연간 컨센서스 추이

그룹	종목	2019 EPS(원)										Change(%)		VALUATION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19.09.14	19.09.21	19.09.28	19.10.05	19.10.11	2달전 대비	4주전 대비	2019 PER	증가	
조선	한국조선해양	-873	-939	-961	949	1,353	2,099	2,099	2,492	2,492	163%	84%	51.0	127,000	
	삼성중공업	-88	-210	-282	-573	-654	-692	-690	-759	-695	적지	적지	-11.5	7,960	
	대우조선해양	2,159	2,873	2,905	3,277	3,868	4,014	4,014	3,834	3,966	21%	3%	7.5	29,850	
	현대미포조선	1,973	1,943	2,030	2,052	1,932	1,954	1,954	1,941	1,925	-6%	0%	23.8	46,000	
조기	HSD엔진	-94	-351	-607	-502	-455	-455	610	-610	-610	적지	적지	-5.3	3,210	
	현대건설기계	5,338	5,527	5,420	3,165	2,843	2,843	2,843	2,823	2,823	-11%	-1%	10.4	29,300	
	두산인프라코어	1,392	1,346	1,325	1,386	1,391	1,391	1,406	1,442	1,442	4%	4%	4.2	6,010	
	두산밥캣	2,993	3,009	2,998	3,024	3,054	3,056	3,056	3,021	3,021	0%	-1%	10.5	31,650	
발전/중전기	두산중공업	746	-38	-38	106	163	163	163	223	223	110%	36%	28.3	6,300	
	현대일렉트릭	464	-1,130	-1,610	-3,436	-4,998	-6,067	-6,067	-6,386	-6,386	적지	적지	-1.6	10,450	
	LS산전	4,767	4,147	4,090	3,901	4,040	4,020	4,020	3,991	3,991	2%	-1%	12.2	48,500	
	한국항공우주	1,630	1,655	1,589	2,217	2,323	2,303	2,303	2,381	2,377	7%	2%	16.0	38,150	
방산/기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213	1,139	1,173	1,197	1,883	1,897	1,897	1,944	1,944	62%	3%	21.2	41,300	
	LG네스윙	1,727	1,727	1,727	1,727	1,727	1,727	1,727	1,727	1,727	0%	0%	20.0	34,500	
	현대로템	294	329	296	-176	-228	-228	-243	-384	-384	적지	적지	-47.7	18,300	
	현대엘리베이터	2,983	2,577	3,207	4,032	2,653	2,653	2,653	1,844	1,844	-54%	-30%	42.4	78,200	
피팅	성광벤드	17	70	130	173	250	250	250	269	269	56%	8%	38.1	10,250	
	태광	396	434	453	415	536	536	536	537	537	29%	0%	19.1	10,250	
	하이룩코리아	992	955	957	1,032	1,102	1,102	1,102	1,102	1,102	7%	0%	15.8	17,4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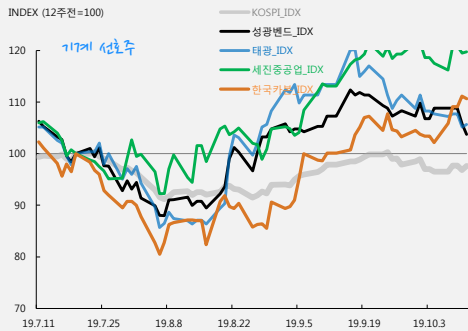
그룹	종목	2019 BPS(원)										ROE		VALUATION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19.09.14	19.09.21	19.09.28	19.10.05	19.10.11	2019	2020	2019 PBR		
조선	한국조선해양	168,505	167,190	167,214	168,331	168,447	169,099	169,099	169,493	169,493	1%	2%	0.75		
	삼성중공업	12,373	12,188	12,074	11,667	11,631	11,597	11,586	11,518	11,581	-6%	1%	0.69		
	대우조선해양	37,848	38,695	38,755	38,859	39,689	39,834	39,834	39,654	39,799	10%	7%	0.75		
	현대미포조선	58,963	59,249	58,899	58,697	58,662	58,678	58,678	58,644	58,638	3%	4%	0.78		
조기	HSD엔진	6,964	6,775	6,587	6,579	6,565	6,565	6,410	6,410	6,410	-10%	6%	0.50		
	현대건설기계	69,878	68,990	68,671	64,735	64,250	64,250	64,250	64,230	64,230	4%	8%	0.46		
	두산밥캣	38,918	39,082	39,347	38,972	38,932	38,796	38,796	38,760	38,760	8%	8%	0.82		
	두산인프라코어	11,275	11,081	11,016	10,848	10,849	10,849	10,928	11,012	11,012	13%	13%	0.55		
발전/중전기	두산중공업	27,160	16,482	16,482	16,225	16,225	16,225	16,225	16,325	16,325	1%	3%	0.39		
	현대일렉트릭	45,667	41,922	41,458	39,123	37,210	39,973	39,973	39,654	39,654	-16%	0%	0.26		
	LS산전	46,696	46,868	46,824	46,738	46,902	46,883	46,883	46,849	46,849	9%	9%	1.04		
	한국항공우주	12,040	12,001	11,680	12,378	12,378	12,370	12,370	12,443	12,439	19%	15%	3.07		
방산/기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47,543	46,923	47,156	47,404	47,480	47,468	47,468	47,503	47,503	4%	5%	0.87		
	LG네스윙	28,818	28,818	28,818	28,818	28,818	28,818	28,818	28,818	28,818	6%	7%	1.20		
	현대로템	13,053	12,609	12,579	12,201	12,082	12,082	11,879	11,837	11,837	-3%	3%	1.55		
	현대엘리베이터	32,182	34,667	37,218	37,641	34,380	34,380	34,380	34,324	34,324	5%	10%	2.28		
피팅	성광벤드	15,581	15,581	15,617	15,665	15,768	15,768	15,768	15,768	15,768	2%	2%	0.65		
	태광	16,788	16,826	16,857	16,857	16,990	16,990	16,990	16,990	16,990	3%	4%	0.60		
	하이룩코리아	25,233	25,159	25,142	25,189	25,270	25,270	25,270	25,270	25,270	4%	5%	0.69		

출처: Datagu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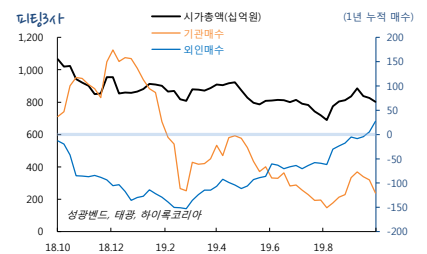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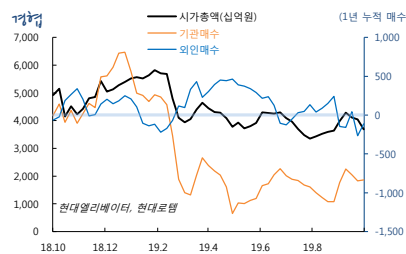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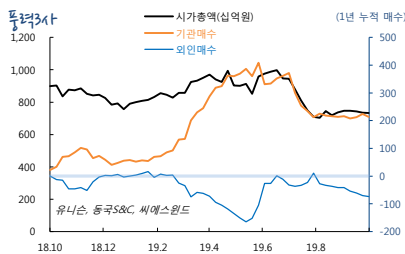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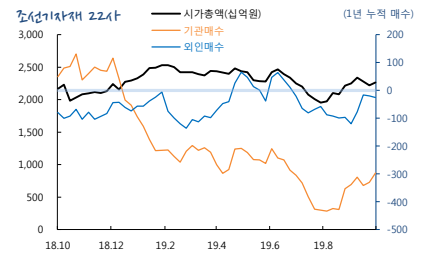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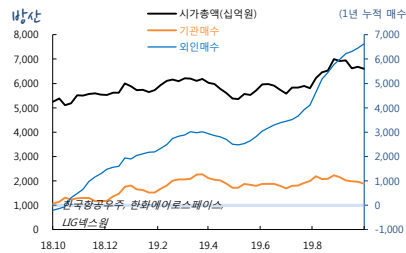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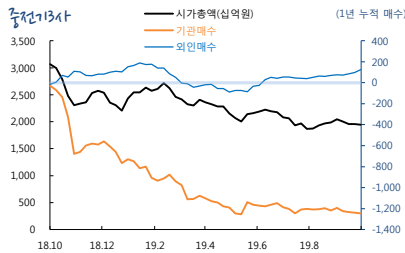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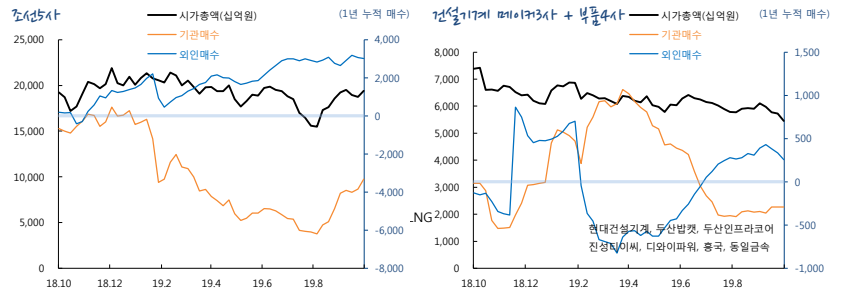
당사 기계 선호주 vs. 시장

▶ 당사 기계 선호주



당사 관찰 기계 업종 전체

▶ 기관, 외인 누적 매수



기계 업종 뉴스

증권기

▶ LS산전, '스마트그리드' 적자 불구 공모채 발행 예고

<http://nr.li/lvziw>

LS산전이 안정적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공모채 발행 스마트그리드 등 융합부문 부진이 지속되고 있지만 차입금 및 자본적지출(CAPEX)을 축소하면서 재무위험은 오히려 낮아지는 모습 수요예측에서 오버부킹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결정 금리 수준에 쏠림 최근 A급 이하 비우량채 수요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AA급 이상 우량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점은 호재 LS산전은 우량채 턱걸이 등급인 AA-이지만 안정적 현금흐름 탓에 금리수준은 예상금리밴드 하단에서 결정될 것으로 관측

건설기계

▶ 현대건설기계, 벨기에 건설장비 임대업에 뛰어 든다

<http://nr.li/lFakb>

현대건설기계 벨기에법인(HMB)이 현지 건설장비 렌탈 회사와 손잡고 장비 임대사업을 확대 HMB는 벨기에 업체 드라이크 베르후르(De Rycke Verhuur)에 건설 장비를 제공 23.5t 5대, 22t 5대, 38t 2대, 5.5t 2대, 스키드 스티어 5대, 14t 휠 굴삭기 2대 등 HX시리즈와 HW시리즈 21대를 공급할 예정 현대건설기계는 장비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고 수리와 보수 등 사후 관리서비스(A/S)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유럽 건설장비시장에서 좋은 평가

▶ 볼보그룹코리아, 국내서 건설기계업 '삼국지' 펼친다

<http://nr.li/VOHFD>

건설 경기가 침체된 최근 국내 시장의 점유율을 늘릴 계획을 세움 업력 21년차를 맞은 볼보그룹코리아가 국내 시장으로 눈을 돌린 건 애프터 마켓 시장을 염두한 것 부품 교체 및 애프터 서비스 등 토탈 솔루션을 제공 볼보그룹코리아는 자사 제품의 품질보증 기간을 3년 6000시간에서 1만 시간까지 연장 경쟁사보다 보증 기간을 늘려 구매를 유도하려는 전략

큰 기계 N/A



방산

▲ 아스트, 엠브라에르 '슈퍼 티어 1' 등극... "수익성 개선" 낙관

<http://nr.li/wh5YW>

브라질 민항공기 제조업체 엠브라에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며 수익성 개선을 예고
 그동안 엠브라에르의 2차 협력사였지만 이후 올 초 트라이엄프 측으로부터 RSP(국제공동개발) 사업권을 넘겨받으며 엠브라에르 1차 협력사로 올라섰다는 이유
 아스트와 엠브라에르는 오는 2039년10월6일까지 2조1069억원 규모의 E-젯 2 기종 동체 납품 계약을 체결
 엠브라에르가 미국 보잉과 조인트벤처를 설립하고 있는 만큼 내년 상반기내에 계약 상대방 변동이 있을 것
 엠브라에르 E-젯 2 기종 이외에 추가 수주 계약도 기대

▷ 국산헬기 '수리온' 해외시장 공략 나선다

<http://nr.li/EJfG1>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측에 따르면, 수리온 헬기에 최신 항공전자 기술을 적용한 수출형(사진) 개발이 진행
 최신 기술을 반영해 수출전략을 가속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
 현재 시제기 설계 및 제작과 시험평가를 마무리하고 군용항공기 특별감항인증 획득을 준비
 이르면 다음달까지 개발을 완료할 것
 수리온 수출형 헬기가 개발되면, 국산 헬기의 해외 시장 진출도 탄력을 받을 전망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에서 수리온 헬기에 관심을 보이는 상황에서 첨단 기술을 적용한 수리온 수출형 헬기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980억원 유상증자

<http://nr.li/2vhn>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종속회사인 한화시스템 주식회사가 시설 및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980억원 규모의 일반공모 증자를 결정
 이번 증자는 한화시스템의 상장을 위한 신주 모집이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화시스템의 지분 52.91%를 보유



글로벌로 발행금리는 1.97%

대분류	티커 / 회사명	시총(백만\$)	1W	1M	3M	3M 주가	1Y	3Y
인프라: 건설기계 / 부품								
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	1,822	-3.3%	-7.6%	-25.9%		-51%	
	두산인프라코어	3,280	-0.7%	-5.2%	-1.5%		-33%	
	두산발켓	3,280	-7.0%	-13.9%	-13.2%		-16%	
대형	CATERPILLAR	88,596	6.1%	-3.5%	-5.2%		-10%	46%
	KOMATSU	28,397	1.7%	-1.2%	-6.3%		-26%	1%
	HITACHI CM	6,748	2.3%	-1.1%	-10.7%		-30%	23%
	VOLVO	37,036	7.2%	-3.1%	-6.1%		-4%	43%
중국	SANY	9,741	3.3%	1.0%	14.6%		78%	160%
	XCMG	4,493	5.2%	-0.4%	-0.4%		34%	44%
소형	DEERE	47,942	1.9%	3.5%	4.6%		15%	98%
	CNHI	16,348	8.1%	-2.0%	1.3%		-4%	43%
	TAKEUCHI	1,317	6.9%	4.7%	-9.4%		-29%	-12%
	TEREX	2,994	1.9%	-10.9%	-14.2%		-31%	-1%
건설기계 부품	디와이파워	167	0.8%	-12.5%	-28.7%		-32%	60%
	진성티미씨	174	-1.1%	-4.8%	-14.9%		-15%	9%
	우림기계	56	-4.4%	-3.7%	-1.2%		-9%	-34%
	흥국	59	-0.8%	-6.7%	-28.5%		-4%	10%
	동일금속	67	0.4%	-0.4%	-1.3%		9%	17%
	KUBOTA	20,295	3.4%	-2.0%	-8.6%		-14%	4%
	가야바	1,045	2.8%	0.2%	-2.0%		-30%	-34%
	Hengli	2,806	5.7%	11.7%	35.9%		96%	323%

방위산업 / 항공부품								
항공	한국항공우주	3,945	0.3%	-7.4%	9.6%		21%	-48%
	방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12	-3.5%	-2.1%	26.9%		49%
항공부품	LIG넥스원	212	-0.3%	4.7%	14.8%		2%	-56%
	아스트	212	3.2%	-2.6%	-8.0%		-17%	-52%
	Boeing	208,880	-0.2%	-2.1%	5.4%		4%	181%
	LOCKHEED MARTIN CORP	97,743	-0.9%	0.0%	3.1%		16%	64%
	Northrop grumann	55,307	-1.8%	0.9%	11.4%		20%	65%
	EADS	95,076	0.7%	-3.8%	-6.5%		12%	126%
	BOMBARDIER	8,437	-1.7%	-16.7%	-30.7%		-61%	-11%
	EMBRAER	3,497	-3.4%	-8.5%	-17.3%		-12%	-8%
	ROLLS ROYCE	24,242	1.8%	-10.7%	-14.0%		-15%	-3%
	ROCKWELL COLLINS	23,154	0.0%	0.0%	0.0%		5%	69%
	HARRIS CORPORATION	19,745	#VALUE!					
	GENERAL DYNAMICS	60,622	1.7%	-4.8%	-1.5%		-6%	19%
	SAFRAN	61,753	1.2%	2.0%	8.7%		31%	126%
	SPIRIT AERO	9,621	1.4%	-3.2%	6.0%		0%	83%
	TRIUMPH	1,161	4.8%	-13.3%	-8.5%		15%	-12%

공작기계 / 기타 철								
공작기계	화천기계	94	-1.3%	-4.3%	-12.6%		-14%	-25%
	기타	와이지원	307	-0.3%	-6.0%	-16.8%		-30%
기타	신진에스엠	55	-3.9%	-4.7%	-9.2%		-11%	-42%
	S&T중공업	197	-1.8%	-3.8%	-15.4%		-7%	-38%
	Shenyang	813	5.4%	15.8%	0.0%		1%	-53%
	Amada	3,927	3.8%	-3.7%	-6.8%		6%	6%
	Moriseiki	2,092	4.3%	-0.1%	-13.0%		-9%	43%
	Jtekt	4,983	3.6%	-2.2%	-5.8%		-21%	-20%
	Okuma	1,862	3.1%	6.0%	3.4%		-2%	50%
	Makino	1,081	2.2%	-0.3%	1.9%		5%	620%
	Schuler	1,082	-2.9%	-14.1%	-30.3%		-44%	-36%
	Gildemeister	4,124	0.4%	-1.4%	-0.7%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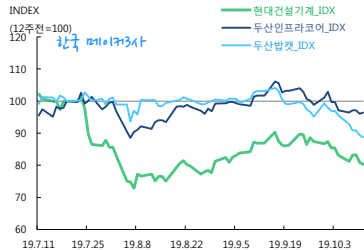
대분류	티커 / 회사명	시총(백만\$)	1W	1M	3M	3M 주가	1Y	3Y	
에너지: 피팅 / 발전 / 중전기 / 풍력									
피팅	성광밴드	325	4.7%	3.3%	0.5%		20%	8%	
	태광	341	1.9%	5.8%	1.5%		25%	8%	
	하이록코리아	286	1.4%	1.1%	1.4%		30%	20%	
발전	두산중공업	1,561	2.0%	-0.2%	1.0%		42%	76%	
	비에이치아이	89	3.8%	1.6%	3.1%		16%	37%	
	S&TC	100	0.9%	3.4%	0.0%		23%	-5%	
	DONGFANG	3,299	1.1%	3.3%	0.6%		32%	-5%	
	BHEL	3,761	5.5%	7.2%	3.7%		43%	52%	
	MHI	12,498	2.4%	1.7%	0.4%		0%	-2%	
	IHI	6,105	6.7%	0.5%	2.6%		43%	17%	
	SIEMENS	108,438	3.8%	1.8%	3.6%		-1%	-6%	
	General Electric	110,029	2.7%	5.0%	5.2%		26%	70%	
	ALSTOM	10,311	1.6%	3.7%	3.2%		3%	58%	
	중전기	LS산전	2,059	0.0%	1.8%	3.6%		24%	13%
		효성중공업	594	3.3%	4.8%	0.5%		40%	
현대일렉트릭		570	0.5%	3.9%	0.1%		69%		
ABB		52,239	2.2%	7.9%	3.5%		12%	17%	
Schneider		46,621	1.1%	1.1%	1.9%		21%	30%	
WEG		9,660	0.3%	1.6%	7.7%		28%	77%	
Crompton Greeves		1,918	0.6%	0.5%	0.6%		24%	44%	
TBEA		3,795	1.4%	2.9%	7.4%		1%	22%	
풍력	씨에스윈드	495	0.3%	0.2%	1.9%		-2%	34%	
	유니슨	179	0.6%	2.3%	3.7%		53%	43%	
	동국S&C	212	2.0%	3.2%	0.2%		38%	74%	
	태용	256	0.0%	5.3%	4.4%		19%	63%	
	VESTAS	13,561	2.5%	2.3%	7.4%		34%	1%	
	GOLDWIND	5,672	5.7%	2.6%	7.6%		53%	8%	
	NORDEX	1,051	3.8%	1.9%	3.7%		41%	56%	
	GOLDWIND	5,672	5.7%	2.6%	7.6%		53%	8%	

현대로템, 현대엘리베이터 = 경합								
철도	현대로템	2,285	-5.7%	-2.9%	-12.0%		-30%	-8%
	ALSTOM	10,311	1.6%	-3.7%	-8.2%		3%	58%
	안saldo	2,925	0.0%	0.0%	0.0%		7%	22%
	Bombardier	8,437	-1.7%	-16.7%	-30.7%		-61%	-11%
	CNR	64,357	1.5%	-5.9%	-7.4%		4%	32%
	CAF	1,478	2.0%	-2.7%	-1.0%		25%	13%
	CSR	33,804	2.3%	-4.1%	-16.4%		-21%	-22%
	현대엘리베이터	2,554	-11.0%	-10.7%	-16.1%		-21%	20%
승강기	KONE	28,609	1.2%	0.3%	1.8%		27%	20%
	UTC(OTIS)	111,677	2.2%	0.1%	2.7%		5%	36%
	SCHINDLER	26,134	0.0%	0.0%	0.0%		1%	17%
	THYSSENKRUPP	14,554	1.5%	-1.4%	3.0%		-38%	-43%
	MITSUBISHI ELEC.	29,169	0.6%	1.2%	-2.2%		1%	11%
	HITACHI	32,140	-0.3%	-2.4%	-3.4%		14%	671%
	SHANGHAI ELEC.	9,990	1.6%	-4.6%	-10.1%		-2%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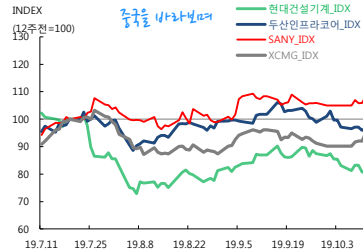


건설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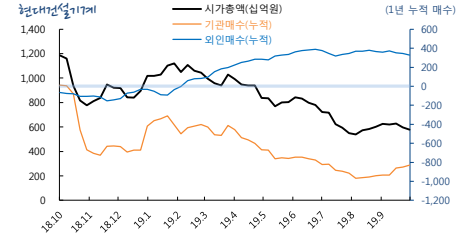
▶ 한국의 메이커 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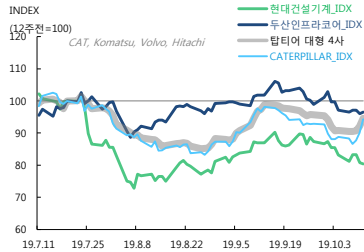
▶ 중국 건설장비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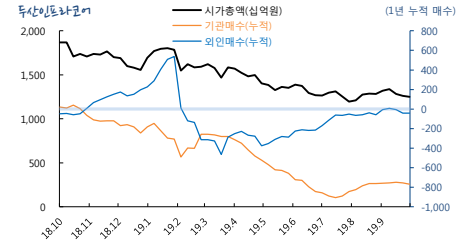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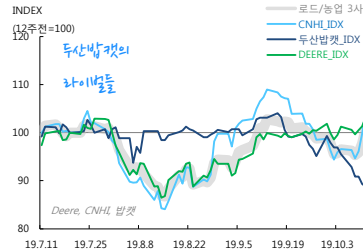
건설기계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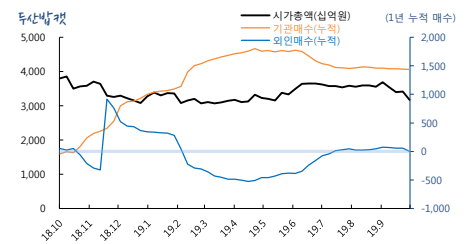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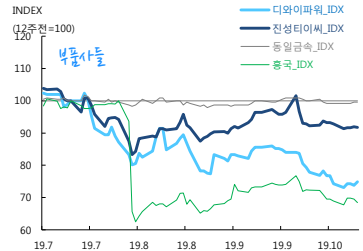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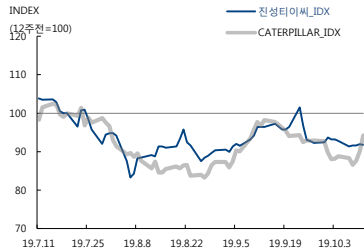
▶ 대형: 두산, 현건기, CAT



▶ 미니 소형에서 두산밥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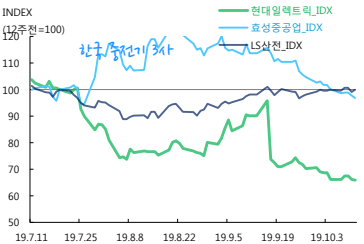


▶ 건설기계 해외 vs 한국 부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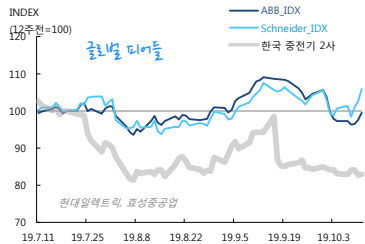


중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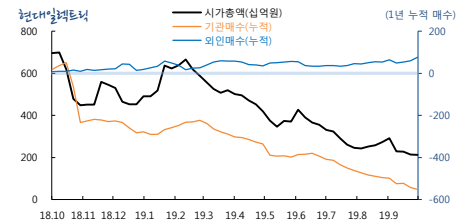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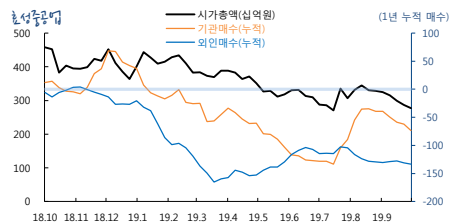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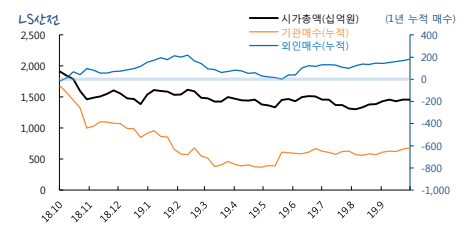
▶ 한국 중전기 3총사



▶ 글로벌 피어 2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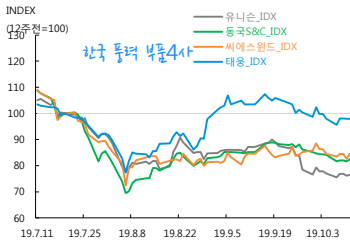
중전기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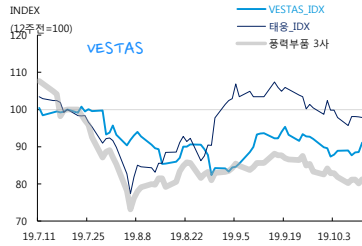


풍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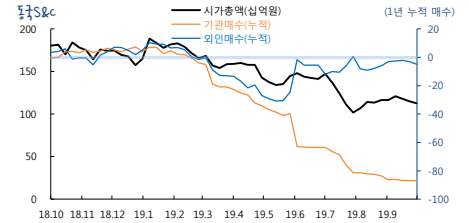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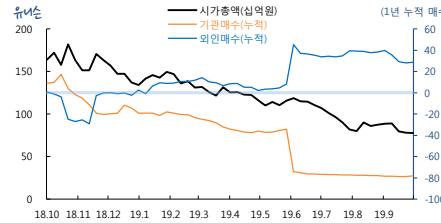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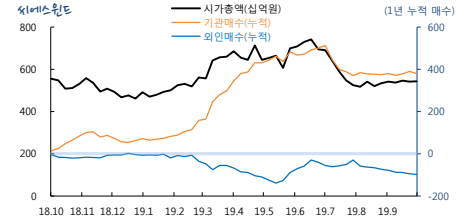
▶ 한국 풍력 부품4사



▶ 한국 풍력 vs. VEST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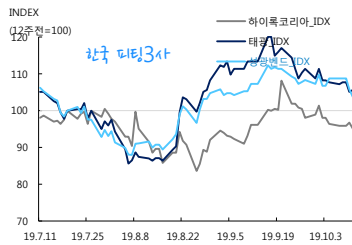


풍력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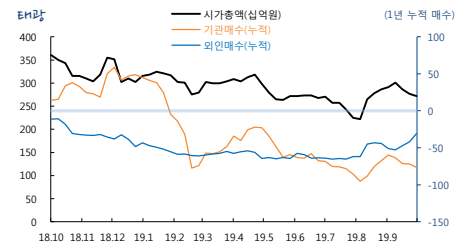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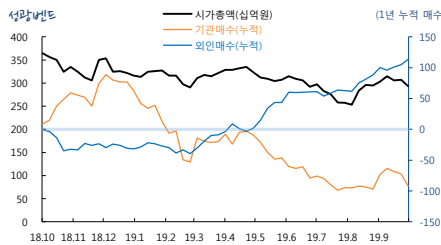


피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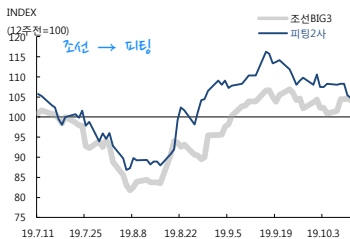
▶ 피팅 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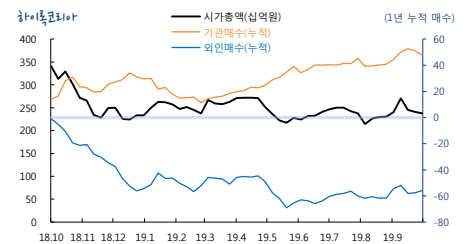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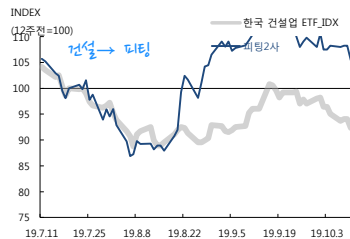
피팅업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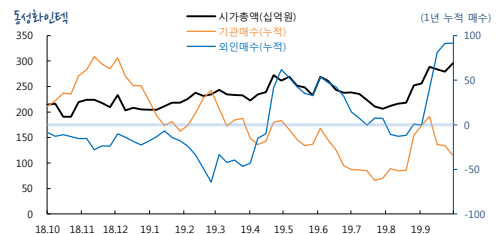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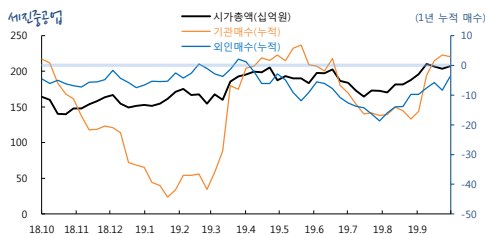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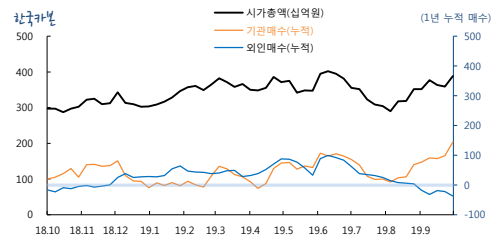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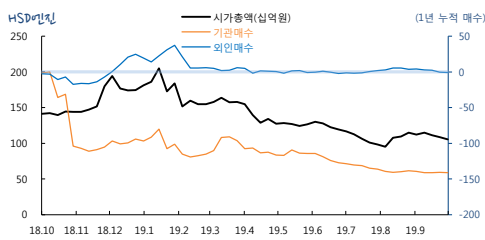
▶ 조선 → 피팅2사



▶ 건설 → 피팅2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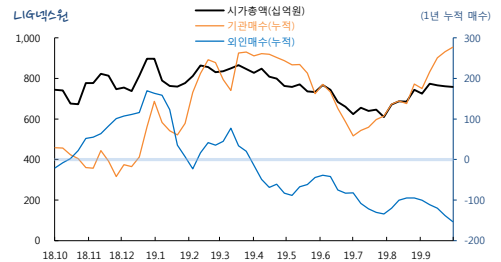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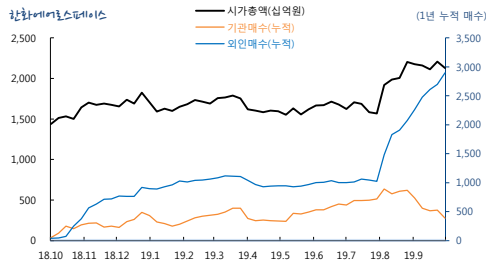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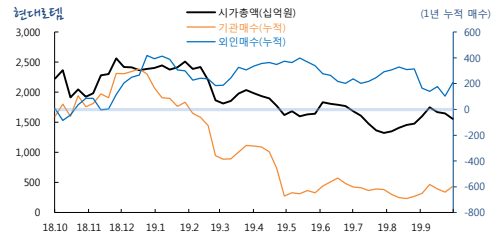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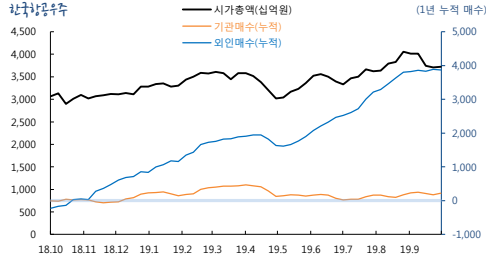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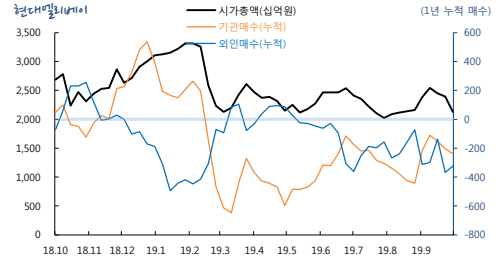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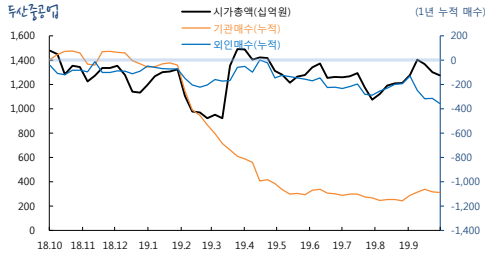


조선기자재 수급





기타 큰 기계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회사는 해당 종목의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 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은 당사와 계열사 관계에 있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최광식)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기준 증가대비 3등급) 종목투자조건은 향후 6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율을 의미함. (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
 -Buy(매수): 추천일 증가대비 +15% 이상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 이상
 2. 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

하이투자증권 투자비용 등급 공시 2019-09-30 기준

구분	매수	중립(보유)	매도
투자의견 비율(%)	91.2%	8.8%	